

하라파문화의 계급적성격

최 광 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은 오랜 력사와 발전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는 훌륭한 고대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김일성전집》 제78권 319페이지)

하라파문화는 인디아의 인두스강류역에서 발생한 문화로서 그 계급적성격을 밝히는 것은 인디아와 나아가서 아시아력사의 유구성과 높은 문화적발전수준을 론증하고 인류의 력사와 문화발전에서 유럽이 주도적역할을 하였다고 떠벌이는 부르조아반동사가들의 유럽중심주의를 타파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까지 하라파문화에 대한 연구는 문자가 해득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고고학적발굴에 의존하고있다.

고고학자들은 하라파문화유적에서 나온 수천개의 인장들과 금속문들에서 발견된 이름과 단어로 볼수 있는 400개의 기호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그것들이 현재 인디아의 중부와 남부에서 사용되는 드라비드어와 비슷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해득은 하지 못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고고학적발굴과정에 나온 건축물들을 통하여 하라파문화의 계급적성격을 밝히려고 한다.

인류사회발전의 전기간에 창조된 모든 건축물들은 해당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게 되며 따라서 거기에는 사회의 성격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B.C.3000년경에 발생한 하라파문화는 인두스강동쪽에 있는 심라부근 루빨로부터 서쪽의 카라치까지, 아라비아해안가의 스트 가젠토르로부터 남쪽의 카디야와르 란구뿌르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퍼져있다.

현재 파키스탄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인디아의 많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하라파문화는 면적이 약 130만km²로서 고대메소포타미아나 에짚트문화의 면적보다 더 크다. 인두스강류역을 따라 거의 1500km에 달하는 지역에서 하라파, 모헨조 다로, 찬후 다로, 스트가젠 토르, 알 무라드 등 약 70개의 도시유적들과 150여개의 거주지유적들이 발굴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판잡주 몬트고메리지방에 있는 하라파도시유적과 신드주 라르가나지방에 있는 모헨조 다로도시유적이다. 이로부터 인두스강류역에서 발견된 고대문화를 총칭하여 하라파문화라고 한다.

건축물을 통한 하라파문화의 계급적성격은 무엇보다먼저 살림집과 그 부근 유적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다른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살림집에도 해당 사회의 성격이 반영된다. 특히 계급사회에서 살림집은 성곽과 함께 사회의 계급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살림집들의 규모와 장식에서 표현되는 웅장함과 화려함의 대조, 살림집들의 위치 등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차이들은 해당 사회의 계급적성격을 잘 보여주고있다.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 착취계급들이 쓰고 살던 주택들은 웅장화려하고 중심구역에 배치된 반면에 인민대중이 쓰고 살던 집들은 짐승우리만도 못한 집아닌 집으로서 대체로 중심을 벗어난 교외에 배치되였다.

하라파문화에서 발굴된 수많은 살림집유적들은 그 규모와 장식, 살림집들의 위치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살림집들은 도시를 구분한 정연한 도로에 의하여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배치되어있었다. 모든 도시들에는 약 10m정도의 넓이를 가진 대도로와 3~5m정도의 넓이를 가진 간선도로들이 있었다.

하라파문화의 도시들에는 이러한 도로들을 기준으로 하여 살림집과 목욕탕, 작업장 등 건물들이 배치되었다.

살림집건축에 리용된 재료는 벽돌이었다. 벽돌은 보통 너비가 두께의 2배이고 길이가 너비의 2배였으며 크기는 26cm×13cm×6cm정도로서 당시 벽돌가운데서 제일 작았다.

유적에서 발견된 살림집들을 보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칸밖에 안되는 초라한 집에서 살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모헨조 다로유적에서는 성의 서북부모서리에 2렬로 16개의 집이 나란히 붙어있는 병렬식집이 발견되었다.

하라파에서도 그러한 병렬식건물이 발견되었는데 2렬방향으로 14개의 집이 있었다. 이러한 살림집들은 부속건물이 없고 그 크기도 매우 비좁았다.

모헨조 다로도시유적에서 발견된 초라한 집들의 외부에는 그들이 일하던 작업장과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가 있었다. 살림집주변의 바닥에서는 마모된 벽돌들과 절구통을 넣었던 구멍, 보리를 비롯한 여러종의 곡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은 곡식을 제분하던 제분소였다. 사람들은 여기서 긴 절구공이를 가지고 곡식을 제분하였다. 그뒤에서 약 1.5m정도의 높이를 가진 견고한 창고유적이 발견되었다. 창고는 처음에 길이가 45.7m, 폭이 22.9m의 흙단우에 건설되었는데 후에 증축된것이였다.

하라파유적에서는 제분소대신 야장간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작업장뒤에서는 길이가 61m이고 폭이 약 46m인 흙기단에 세운 15.2m×6.1m정도의 곡식창고자리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도시유적들에서는 피지배계급이 살았다고 볼수 있는 매우 초라한 살림집과 그 주변에 있던 작업장, 창고유적들이 발견되었다.

도시유적들에서는 이러한 초라한 살림집유적들과 함께 규모가 매우 크고 여러 부속 건물들을 갖춘 살림집들과 특권층의 사치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에 리용된 목욕탕들도 발견되었다.

모헨조 다로에서 발견된 집들가운데서 어떤것들은 여러 부속건물들을 갖춘 규모가 매우 큰 집들이였다. 이러한 살림집들은 로에서 구운 벽돌로 든든하게 쌓았는데 내부는 여러가지로 장식을 하였다.

특권층이 살던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집들에는 10m정도의 매우 넓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방과 창고, 목욕탕과 우물 등이 배치되어있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도로를 향하여 출입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문지기가 살던 집이 있고 보초를 설수 있게 되어있었다.

현재 이 집의 지붕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서남아시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평지붕이었을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비물이나 오수를 뽑는 배수관이 있었다. 그 지붕은 목재를 대들보로 하여 벽과 벽사이를 가로질러 그우에 참대나 갈을 대고 진흙을 발라 만들었을것이다.

어떤 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방이 있고 외부로 향한 객실을 가지고있었으며 지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갈수 있게 되어있었다. 특히 이러한 주택들가운데는 규모가 매

우 큰 목욕탕들을 갖춘 집들도 있었다.

하라파문화의 도시들에는 정연한 상하수체계가 갖추어져있었다.

상하수체계는 도로밑을 통하여 매 집과 도자기관으로 연결되어있었는데 일정한 구간마다 망홀을 설치하였다. 망홀은 하수도로 드나들수 있는 출구인 동시에 매 집의 오수나 비물이 모여들면서 침전물은 잡아두는 곳이기도 하였다. 하수도는 벽돌로 축조하였는데 크기는 52cm×21.5cm×5.7cm정도로서 당시 벽돌가운데서 가장 큰것이었다.

이러한 상하수체계는 다른 고대문화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도로와 함께 하라파문화의 발달된 도시설계를 보여주고있다.

모헨조 다로에서 발견된 살림집에는 길이가 12m, 폭이 7m이며 깊이가 2.5m인 대목욕탕이 갖추어져있었다.

이 목욕탕은 주변에 베란다가 달려있고 남북방향에 욕조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었다. 목욕탕바닥은 로에서 구운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결면을 연마하였기때문에 보통것보다 크기가 작은 24cm×11cm×28cm정도였다. 이러한 벽돌을 깔고 벽토(석회와 붉은 진흙을 특수한 용액으로 반죽한것)로 매몰하였다. 베란다의 뒤에는 여러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어느 한 방에는 우로 올라갈수 있게 계단도 있었다.

대목욕탕북쪽에는 8개의 작은 목욕탕이 2렬로 나란히 놓여있었다. 작은 목욕탕은 그 크기가 3m 또는 2m였으며 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벽두께를 보면 매우 견고하게 축조하였으며 2층으로 되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대목욕탕이 달린 이러한 집은 승려들의 집으로서 살림방은 2층에 있었다.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승려들은 2층에 있는 방에서 살면서 종교적인례식을 위해 대목욕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모헨조 다로의 주택들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한칸짜리방을 가진 초라한 주택에서 살았지만 특권층은 담장으로 둘러막힌 넓은 부지에 10칸짜리 방과 내부정원 그리고 2~3칸의 창고까지 갖춘 집에서 살았다. 지어 일부 집들은 수십칸짜리 방과 다양한 정원, 벽돌을 굽는 로까지 갖추고있었다.

이처럼 주택규모와 내용, 주변건물에서의 현저한 차이는 당시 하라파문화의 계급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건축물을 통한 하라파문화의 계급적성격은 다음으로 성유적을 통하여 알수 있다.

성은 원시사회말기 계급의 발생과 함께 발생하였다.

원시사회말기 계급이 발생하고 계급적대립이 격화되자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반항을 막고 저들의 생명과 재부를 보호하며 외부세력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건설을 진행하였다.

성에는 산성, 도시성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하라파문화유적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라파와 모헨조 다로, 스트가겐 토르, 알 무라드 등에서 성유적들이 발견되었다.

하라파유적에서 발굴된 도시들의 내부에는 지배계급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들과 그들이 쓰고 살던 집들이 집중되어있었으며 일반사람들의 살림집은 대체로 교외에 있었던 조건에서 이 도시성들은 명백히 피지배계급의 반항이나 다른 국가 또는 종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진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하라파에서 발굴된 도시성유적들은 인두스강류역에서의 계급형성과 국가발생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두스강류역의 주민들은 성을 축조하는데서 해빛이나 로에서 말리운 벽돌을 기본재료로 리용하였으며 일부 자연돌을 리용하기도 하였다. 성을 쌓는데 리용된 벽돌은 크기가 35.3cm×18cm×9cm 또는 38cm×18cm×7.8cm로서 일반건물에 리용된 벽돌보다 훨씬 컸다.

하라파도시유적에서 1946년에 발굴된 성새유적은 먼저 벽돌로 6~8m정도의 두께를 가진 축대를 쌓고 이것을 골조로 하여 기본성벽을 축성하였다. 성의 두께는 기초부분의 폭이 약 16m였고 높이는 11m였다.

하라파성은 그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는 해빛에 말리운 벽돌을 리용하였으나 외부는 로에서 구운 벽돌을 리용하였다.

성의 서쪽과 북쪽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설치하였는데 서쪽문은 문과 로대를 갖추고있었고 북쪽문은 대문이였다. 또한 성벽에는 성전반을 감시할수 있는 망루가 설치되어있었다. 망루는 성벽높이보다 높고 성벽으로부터 돌출되어있었다. 성의 남쪽구석에는 성벽우로 통하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모헨조 다로에서 나온 성유적은 현재 스투파 마운트로 불리우고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하라파성과 거의나 같은 구조를 갖추고있었다.

1950년대에 발굴된 이 유적은 도시건설과 함께 시작되어 전성기에 완성되였다. 모헨조 다로성의 동남모서리와 서쪽, 남쪽에 망루가 설치되였는데 남쪽의것은 다른것들보다 작았다.

특히 모헨조 다로성은 내외부를 다같이 로에서 구워낸 벽돌로 축조하였기때문에 매우 견고하였으며 아직까지도 그 형태가 거의나 그대로 보존되고있다.

스트가젠 토르와 알 무라드에서 발굴된 성유적들은 하라파나 모헨조 다로와 달리 성을 쌓는데 벽돌이 아니라 자연돌을 리용한것이 특징적이다.

카라치에서 서쪽으로 483km정도 떨어진 스트가젠 토르에서 발견된 성유적은 남북이 155.5m이고 동서가 114.7m인 장방형으로 되어있었다. 성의 기초는 약 10m정도였으며 성벽은 4각으로 된 판석을 리용하여 쌓았다. 매 판석은 점토제에 의하여 고착되였다. 성의 남쪽벽면의 서쪽모서리에는 3m정도의 넓이를 가진 망루가 설치되어있었다.

신드주 다도의 서남쪽에서 32.2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알 무라드에서 나온 성도 스트가젠 토르와 같이 자연돌을 리용하여 쌓았다. 성은 4각형의 모양을 하고있는데 벽체는 단면이 0.6m이고 서쪽은 조잡한 돌로 쌓았으며 두께는 1.5m정도였다. 성의 남쪽에는 문이 설치되였고 남쪽벽면바깥에는 망루로 볼수 있는 건물흔적이 남아있었다.

이외에도 하라파문화의 수많은 도시유적들에서 성유적들이 발굴되였다.

하라파문화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성들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성문과 로대, 보초소, 망루 등 여러가지 성벽시설들이 갖추어진 방어력이 강한 발전된 성이였다.

찬후 다로를 비롯한 극히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발견되고있는 이러한 성유적들은 당시 하라파문화의 계급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인류문명의 려명기 인두스강류역에도 계급사회가 형성되였다는것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라파문화가 계급사회의 문화로서 인두스강류역이 매우 이른시기에 고대문명에 들어선 지역들중의 하나라는것을 보여준다.